

공공도서관에도 새 빛을

李春熙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도서관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개정도서관법이 공포된지도 두달이 지났다. 그러나 이 법이 소기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이 곧 나와야 하고, 또한 그 내용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 도서관의 앞날이 사뭇 달라질 수도 있다.

도서관과 도서출판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도서관의 문제는 비단 도서관계 뿐만 아니라 출판계에도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크게는 전 독서인의 관심사라고도 할 수 있겠다.

도서관에는 공공도서관을 비롯하여 학교, 대학, 특수 등 여러 종류의 도서관이 있다. 이 중에서도 일반 대중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이 공공도서관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작년도 전국도서관 통계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의 수는 168개에 불과하여, 학교나 대학은 물론이고 247개인 특수도서관의 수에도 못미치고 있다. 가장 많아야 할 공공도서관이 이와같이 가장 적다는 것은 아마 세계 어느 나라 도서관통계에서도 볼 수 없는 기형적인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이들 168개 공공도서관 중 상당수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연간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서관이 약 70개나 된다. 이 중 약 20개는 일년 도서구입비 예산이 100만원 이하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전체 공공도서관의 약 반수는 이름 뿐인 공공도서관이지, 對民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누적된 재정상의 빈곤, 관계당국의 몰이해와 무관심 속에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였다. 지난번 다행히도 도서관법이 개정됨으로써 침체 일로에 있었던 공공도서관들이 다소나마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소지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꽤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우선 공공도서관 분야와 관련된 조항 중 크게 달라진 점 두가지만을 예로 들어, 앞으로 제정될 도서관법시행령의 중요성의 일단을 소개코자 한다.

첫째는 도서관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서관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도서관을 위하여 금전이나 재산을 기부하게 되면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이이익의 사회환원 또는 도서관 육성을 위한 민간주도를 적극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장차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행령이 곧 제정되어야 하고,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이 뒤따라야만 한다. 이러한 제 관계법이 확정되면 공공도서관의 재정상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는 문교부장관 소속하에 '도서관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시피 한 도서관의 문제가 비로소 국가 차원의 관심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기타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니, 이 법의 실효는 앞으로 제정될 대통령령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안고 있었던 재정상의 빈곤, 관계당국의 도서관정책 부재 등 두가지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으나, 그에 뒤따르는 제반 후속조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제 막 제6공화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도 새 빛이 활짝 들어 국민 누구나 도서관을 통하여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기대한다.

초점	2	범람하는 '不法複製' 이래도 좋은가
세계의 추천도서	4	'사랑의 길'로 가는 門 열기/李重漢
기행	6	東유럽 여섯나라를 가다/宋相庸
토박	8	東歐圈 연구도서 너무 빈곤하다
서평	10	「한국자본주의 성격논쟁」—全哲煥 「新著作權法 逐條概說」—黃迪仁 11 「잃어버린 革命」·「和而不同」—金鎮炫 「中共의 少數民族政策」—崔寬藏 12 「韓國現代文學思想史」—신범순 「분단문학비평」—임우기 13 「가정폭력」—김미경 「韓國儒學史」—琴章泰
문학서평	14	'열린 문화' 위한 경쟁적 동반자로/장석주
출판화제	15	해방후 민족사학의 큰 성과—洪以燮全集
	16	學界 연구성과의 출판러시
	17	漢文學 유산의 대중적 개방—韓國의 漢詩 카메라로 잡은 性微스님—朱明徳의 寫眞集
	18	새롭게 조명되는 역사인물의 삶
내가 아끼는 책	19	80년만에 돌아온 '배설 讖詞集' /鄭晉錫
지금 독서중	20	안이숙의 「죽으면 죽으리라」—대신고교 吳東春씨 페트릭 코넬리의 「사랑하는 아빠가」—가정주부 崔貞惠씨 21 李文烈의 중편 「塞下曲」—대우자동차 趙太運씨 李清俊의 「당신들의 天國」—방송광고공사 劉贊熙씨 22 토머스 핀천의 「제49호 품목의 경매」—동서증권 禹永禎씨 法頂스님의 「山房閑談」—염색공예가 安愛卿씨 23 도중환의 「접시꽃 당신」—영화 카피라이터 李元基씨
지금 제작중	23	「도스토예프스끼全集」 내는 '열린책들'
베스트셀러社會史	24	黃皙暎의 대하역사소설 「張吉山」 /金彦鎬
저작구상	5	'講壇美學'의 사회화—「社會美學」/金文煥
독서교육	27	日本의 학교교육과 독서지도 /大木 衛
저작권 코너	29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와 저작권 /韓勝憲
서평가	30	바야흐로 불붙은 '書店 혁명'
책의 세계	31	창간 100주 맞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김호근
세계의 출판	32	'순응의 세대' 대표하는 존 업다이크·외
독자서평	28	「새 춘향단」·「정치사회학要論」
	34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무크/계간지/화제의 책
	43	신간목록
	46	정기간행물 출판기사색인
	47	출판계 움직임
	48	독서 퍼즐